검소한 한옥 짓고 자연 닮아 사는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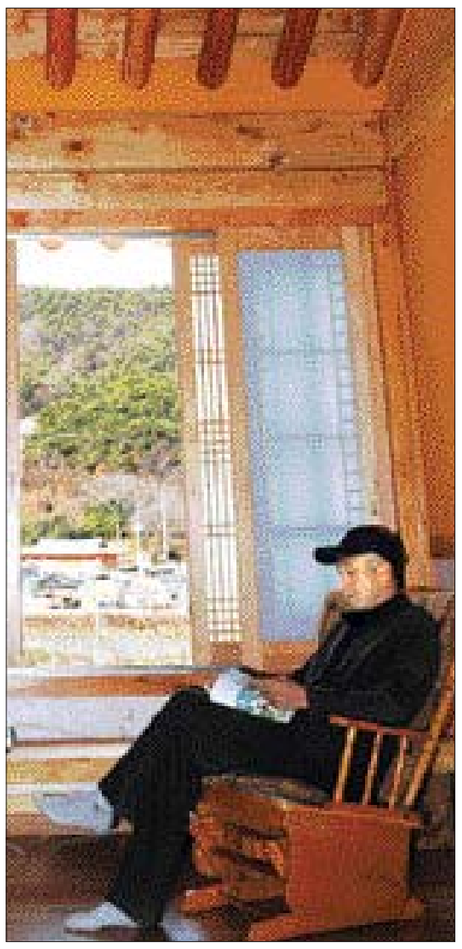
무안군 몽탄면 약실마을 배석진씨 한옥

"자식들 다 키우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시골로 내려가야지"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 한번쯤 꿈꾸는 퇴직 후의 전원생활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고정 관념과 달리 전원생활을 생업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낭만이나 멋을 위해서가 아닌 실용과 편의를 위한 전원생활인 셈이다.

무안군 몽탄면 약실마을에 한옥을 지어 살고 있는 배석진(48)씨의 경우가 그렇다.



배석진씨가 한옥 거실에서 독서를 하며 한가롭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목포 시내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약실마을의 끝자락에 지어진 배씨 한옥은 건평 30평(대지 300평) 규모의 단아한 집이다. 특별한 구조도 아닐 뿐더러 별다른 장식이나 인테리어 하나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전통 한옥이다.

배씨가 이 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지은 지는 2년이 채 못된다. 아직 그럴싸한 돌담도 없고, 정원도 가꾸지 못했다. 흔한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심지 못했고, 잔디도 없다. 다만 집 마당에는 아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만이 서 있을 뿐이다.

"전원생활이 특별한 건 아니잖습니까. 대개 애들 다 키우고, 50대가 넘어 은퇴 후에 시골에서 멋스러운 집을 지어 주위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사는 게 전원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나와 내 가족이 편하면서 경제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의미가 더 크지 않나요"

그는 한참 직장생활을 하던 40대 초반부터 전원생활을 계획했다. 약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목포대 생약자원과에 편입·졸업 후, 한약관리약사가 돼 한약재 전문 판매업에 뛰어들었다. 사무실은 목포시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상동에 열고, 집도 인근 아파트를 택했다.

직업상 직접 약초 재배를 하기로 맘 먹은 그는 3년여 동안 집터와 약초 재배에 알맞은 시골 땅을 보러 다녔다.

결국 2년전 이곳 약실마을을 발견했다고 한다. 약실마을은 별다른 특색이 없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에게는 사무실과 2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땅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

배석진(사진 오른쪽)씨가 자신의 집 앞 약초 밭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약초 생육과 재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민 3명은 최근 배씨의 도움으로 약초 재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접근성 좋고 가격 저렴… 2년전 지어
마흔 넘어 대학 편입 후 한약관리사 돼
8천여평 밭에 감초·시호 등 약초 재배

문제는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함께 약재상을 하던 집사람이 시골생활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의 교육 문제도 고민이었다.

자식들의 등·하교를 본인이 자가용으로 책임지는 조건으로 한옥을 지었고, 지난해 초 이사를 했다. 좋은 공기에 편안한 시골풍경, 지금은 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

특히 배씨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옥보존시범마을'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2천만원의 보조금을 무상지원 받았고, 3천만원 융자(년 2%)까지 알선받았다.

지난 해부터 자신이 구입한 집 주변 3천여평의 밭에 감초와 시호, 창출백출(삽주) 등의 약초를 심었다. 연말에는 마을 주민의 밭 5천여평을 빌려 추가로 약초를 심었다.

배씨가 약초를 심자 약초에 관심을 가진 몇몇 주민들도 그의 도움을 받아 약초를 재배하고 있다. 약실마을과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는 1년도 채 못돼 이 마을 주민이 다 됐다.

전원생활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젊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경치나 안락함보다는 전원생활도 사회생활인 만큼 마을 주민들과 얼마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은퇴 후 라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전원생활을 꿈꾼다면 도심과 약 3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경제활동과 자식 교육에 큰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배씨의 경험담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물맛 좋고 산약초 풍부한 '웰빙 관광마을'

■ 약실마을은 어떤 곳

무안군 몽탄면 약실마을은 목포 시내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광주에서는 50여분 정도로 거리가 있지만 목포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비교적 뛰어난 조그만 마을이다.

배씨가 자리잡은 약실마을은 마을 입구가 좁고, 야산에 둘러싸인 소쿠리 형태의 취락구조여서 처음 찾는 이들도 안락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다.

이 때문에 27가구가 전부인 마을에 목포와 광주 등에서 온 외지인의 전원주택이 9가구나 된다. 땅값이 평당 5만원~6만원으로 주택을 짓기에 부담되지 않는 점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지인들은 목포와 가까운 탓에 아예 주거를 옮긴 이들도 있고, 주말에만 전원주택을 찾는 이도 있다고 한다.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물맛이 좋다는 것. 야산에 맥반석이 많아 마을 우물 물맛이 뛰어나다. 주민들이 전문기관에 물의 성분과 상태를 검사 의뢰한 결과, 수질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약수로 이용하고 있다.

무안군은 산약초와 맥반석, 지하수 등이 풍부한 약실마을을 '웰빙 관광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37가구중 22가구가 한옥을 신축할 예정이어서 전통 한옥마을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